아동의 인지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
—5세, 7세, 및 9세 아동을 대상으로—

Cognitive Styl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5-, 7-, and 9-year-olds

정 윤 주
Chyung, Yun Joo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children's field dependence by age and sex, (2)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by age, sex, and contextual factors, (3)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by field dependence. The subjects were 120 five-, seven-, and nine-year-olds. Children's field-dependence was measured with the Children's Embedded Figures Test (CEFT).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was measured with the 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Test (PIPS Test).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s.

Major findings were that (1) The older children were more field-independent than the younger ones (2) The older children suggested more problem solving methods and higher-level problem solving strategies than the younger ones. (3) Children suggested higher-level problem solving strategies in contexts involving familiar as opposed to unfamiliar participants and contexts involving children as opposed to adults. (4) 9-year-olds' field-independe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Ⅰ. 문제 제기

대인 문제 해결력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 문제의 갈등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으로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아동의 대인 관계의 질은 현재와 미래의 심리적 적응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왔고(Parker & Asher, 1987), 아동기에 대인 관계 기술의 결함 때문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여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면, 그러한 부적응이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까지 지속된다는 보고(Kupersmidt, Coie, & Dodge, 1990)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동기의 대인 문제 해결력이 일생 동안 개인의 심리

* 본 논문은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교 조교수

적·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 건강은 사회 인지능력 즉,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대인 문제에 직면하여 사고하고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는 비사회적인 내용의 문제와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는 하는 것에 집중되다가 최근들어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인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Urbain & Kendall, 1980).

친구가 적거나 거의 없는 아동은 사회적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Selman & Demorest, 1984), 가상적인 상황에서 역할 놀이를 했을 때 인기없는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 보다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보고(Gottman, Gonso, & Rasmussen, 1975)도 있었다. 또한, 인기없는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 보다 친구를 사귀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했다(Renshaw & Asher, 1982).

최근의 아동들은 인지 발달과 성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 속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이 대인 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양상과 그들에게 부족한 면을 파악한다면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상황 특히,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아동의 능력과 관련되는 변수를 밝히는 일은 의의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력을 설명하는 변수로 인지양식을 살펴보려한다. 인지 양식은 정보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차로서 인간의 다양한 태도, 사고, 행동 등을 결정하는 개념이며, Witkin과 그의 동료들(1962)이 주장하였듯이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Ⅱ. 관련 연구 고찰

1. 인지양식

인지양식은 정보를 선별하고 처리하는 개인의 독특한 방법으로서, 일관성있는 개인차를 나타낸다. 또한, 인지양식은 자극과 반응간의 매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개념으로, 개인이 환경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특징적인 방식(Goldstein & Blackman, 1978)이다.

인지양식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접근되고 있는데 다양한 인지양식 유형 중,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개념은 수직지각(perception of the upright)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 연구에서는 지각의 준거 체계로서 신체 및 장(field)을 이용하는 경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분화 이론이 발표된 후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개념이 보다 발전되었으며 개인적 기능의 차원을 분화 구조로 개념화하여 다양한 심리적 특성까지 설명하였다(Witkin, Goodenough & Oltman, 1979).

분화 이론에 따르면, 장의존적 인지양식은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을 둘러싼 배경 즉, 장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이며, 장독립적 인지양식은 사물의 배경에 관계없이 사물만을 독립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다(Witkin et al., 1979). 따라서, 이러한

지각 과정에서의 특징은 개인의 인성적 특징, 사고, 학습,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Goodenough, 1976).

한편, 인지양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장독립성-장의존성의 발달 경향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의존성은 감소하고 장독립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조진형, 1983; Vaught, Pittman & Roodin, 1975)가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의존성-장독립성 경향은 연령이 증가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stein & Blackman, 1978).

반면에 인지양식의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가 장의존성을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Witkin & Goodenough, 1977)가 있는 한편, 남아가 여아 보다 장독립성이 더 높거나(Coastes, 1974), 같게 나타난 연구(Vaught et al., 1975)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권영실, 1988; 조진형, 1983)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대인 문제 해결력

대인 문제 해결력은 사회 인지 능력의 하나로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으로 대인 관계에서 발생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Krasnor & Rubin, 1981)을 의미한다.

Spivack과 Shure(1974)는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방안으로 대인 문제 해결 사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대인 문제 해결 사고에는 대안적 해결 사고, 결과 예측 사고, 원인 추론 사고, 수단-목적 사고가 있는데. 이 네가지 하위 사고 영역은 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보적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문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Shure, 1982).

대인 문제 해결 사고를 해결 방안의 수로써 측정하여 이를 사회적 능력과 관련지어 본 Spivack과 그의 동료들(1974)의 연구와 달리 해결 방안의 내용 수준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했던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4)의 연구가 있다. Selman의 모델에서는 대인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 수준이 4개로 분류된다. 각 수준은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에 따라 순서지워진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한 선행 연구들은 대인 문제 해결 방안 수준이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는 개념도 지지했다(Yeates, Schultz & Selman, 1991).

그런데, 대인 문제 해결 사고는 실제적인 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adbeater et al., 1989; Platt, Spivack, Altman, Altman & Peizer, 1974; Selman & Demorest, 1984). Spivack과 Shure(1974)는 가상적인 대인 문제 해결 상황에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아동은 적응하는 아동보다 문제 해결 대안과 결과에 대한 사고가 부족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비행 청소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상호작용을 지속하며, 대인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결과(Dishion, Loeber, Stouthamer-Loeber, & Patterson, 1984; Kaplan & Arbuthnot, 1985)도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대인 문제 해결력의 연령차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1-19세의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했다는 보고(Selman et al., 1986)가 있으며, 박찬옥(1987)도 6세, 8세,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인 문제 해결 방안 점수가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아동의 성별로 대인 문제 해결력을 다룬 연구들도 있는데, 먼저 성차가 없다고 한 연구들(김은희, 1990; 백인주, 1987; Shure & Spivack, 1972; Kurdek, 1982)을 구체적으로 보면, Shure & Spivack(1972)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대인 문제 해결 방안 점수와 방안 내용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Kurdek(1982)는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인지 변인과 사회적 능력 변인 간에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5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의 동료간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 해결 전략 및 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백인주(1987)나 4세, 6세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능력을 연령, 성, 상황에 따라 연구한 김은희(1990)도 성차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차를 보고한 연구(Selman et al., 1986; Ford, 1982)도 있다.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6)은 청소년의 대인 문제 해결에서 여아가 남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안을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Ford(1982)도 9학년, 12학년 청소년에서 여아가 남아 보다 수단-목적 사고, 정서 조망 수용에서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대인 문제 해결력의 또 다른 연구 영역으로 문제 상황을 일으킨 상대방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상대방의 연령에 따른 차이인데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을 조사한 또래간과 그의 동료들(1986)은 청소년들이 성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보다는 또래간의 갈등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방안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과 아동, 아동과 성인간의 상호작용에 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Eisenberg et al., 1985)에서도 아동들은 아동-아동, 아동-성인 상호작용에서 질적인 차이를 지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또래에 대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성인과 또래에 대한 아동의 개념은 각각 다르게 발달해가며 상호작용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대인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방안도 문제해결 대상이 또래인지 성인이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론된다.

대인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문제 상황의 또 다른 차원으로 상대방의 친숙 정도를 들 수 있다. Yeates와 그의 동료들(1991)은 Selman의 모델에 따라 대인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문제 해결 사고를 알아보았는데 대상이 친숙한 경우에 사고수준이 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대상의 친숙성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3.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초기 연구에서 지각이나 인성 특징, 인지적 능력 등을 강조하던 것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인 관계 영역까지 확대되어 여기에 관심을 둔 연구(Ruble & Nakamura, 1972; Witkin & Goodenough, 1977)가 시도되었다. Witkin & Goodenough(1977)는 장독립성-장의존성과 대인 행동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장의존적인 아동은 사회관계 지향적 즉, 인간지향적이고, 장독립적인 아동은 사물이나 과제 지향적이라고 보고했다.

Ruble & Nakamura(1972)는 국민학교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인지양식에 따라 참고하는 단서가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물체를 조립하는 과제에서 장의존적인 아동은 사회적인 단서인 실험자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비사회적인 단서인 실험자의 손과 과제 해결 방법에 주목한 장독립적인 아동에 비하여 과제 수행이 저조했다.

Witkin & Goodenough(1977)는 장의존적인 사람은 장독립적인 사람에 비해 사회 지향적이어서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에 주의를 더 기울이며 외부적인 준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경향은 정보가 모호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의존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강한 흥미를 보이고 타인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며, 사회적 상황에 더욱 이끌리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처럼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 양식과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의 관계는 거의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대인 상황에서의 특성들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사회적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인 대인관계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라 문제해결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가설 및 연구문제

가설 1. 아동의 인지양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장독립적일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인지양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친숙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대인 문제 해결력과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인가?

2. 용어의 정의

(1)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을 둘러싼 배경, 즉 장에 보다 의존하느냐 배경에 관계없이 사물만을 독립적으로 지각하느냐의 성향을 의미한다.

(2) 대인 문제 해결력

대인 문제 해결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능력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의 수와 문제 해결 수준으로 측정한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유치원 유아반의 5세 아동과 국민학교 1학년(7세), 3학년(9세), 아동 각 40명씩 총 120명이었으며, 남녀가 같은 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을 5세, 7세, 9세로 선정한 것은 인지발달 단계상 5세는 전

조작기, 9세는 구체적 조작기, 7세는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중간적 시기로서 그에 따라 대인 문제 해결 방식에 발달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아동용 숨은 그림 찾기 검사

아동의 인지양식이 장독립적인지 장의존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아동용 숨은 그림 찾기 검사(Children's Embedded Figures Test: CEFT)는 1963년에 Karp와 Konstadt가 Witkin (1962)의 잠입도형검사(Embedded Figures Test)를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이 검사는 아동에게 삼각형과 집 모양의 단순 도형을 보여주고 난 다음, 복잡한 그림 속에서 이 표준 도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5-10세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문항 8개, 연습 문항 5개, 본검사 문항 25개로 구성되어있다. 훈련 문항과 연습 문항은 아동과 조사자간의 래포 형성을 도우며, 아동이 본 검사에서 찾아야하는 단순 도형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채점 방법은 각 문항에서 아동의 처음 응답의 옳고 그름에 따라 1점 혹은 0점을 주는 것인데, 그림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모두 틀렸을 경우 0점, 모두 맞았을 경우 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양식이 장독립적이라고 해석한다. 아동용 인지양식 검사 도구로는 CEFT 외에 PEFT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시킨 것이지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FT를 사용하였다.

(2) 대인 문제 해결력 검사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PIPS검사(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Test)와 INS인터뷰(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Shure와 Spivack(1974)이 제작한 PIPS검사를 우리 나라 상황과 조사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사용했다. 이 검사는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남감을 가지고 놀고싶을 때'와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려야할 때'의 두 가지 대인 문제 상황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아동이 가지고 노는 장남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비행기(남아), 인형(여아), 작은 삽, 연, 그네, 작은 북, 배, 팽이인데 이 중에서 연, 작은 북, 배, 팽이는 아동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대신에 동화책, 블럭, 로보트(남아), 곰인형(여아), 자전거로 바꾸었고, 아동학 전공자 3인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사받았다. 채점은 아동이 각 문제 상황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말할 때마다 1점씩 가산되며, 가능한 최고 점수는 12점이다. 아동의 응답은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원 아동학 전공자 2명 등 총 3명이 범주별로 문류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93이었다.

두번째로 아동이 대인 문제 상황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Yeates그의 동료들(1991)이 고안한 INS인터뷰(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nterview)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 인터뷰는 대인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동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 친숙한 경우와 친숙하지 않은 경우의 2차원에 따라 4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각 상황마다 3개씩 총 12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차원에서 아동-성인 차원은 대인 갈등 상황의 상대방이 또래인 경우와 교사인 경우이다. 그리고, 친숙-비친숙 차원에서 친숙한 인물은 아동의 친한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며, 친숙하지 않은 인물은 친하지 않은 아이나 처음 만나는 교사이다. 여기에서 이야기 속의 갈등 상황 발생을 기준으로 하여 주인공 아동이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친숙한 인물, 이야기 속의 갈등 상황 발생 시점에서 안면이 있는 정도인 사람을 비친숙 인물로 정의한다. 각 아동에게 4개의 상황에서 1가지씩 4가지 이야기를 선택하여 들려준 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묻는다. 이때, 아동이 바뀔 때마다 상황별로 선정되어 있는 3가지 이야기를 번갈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12가지 이야기 중 우리 나라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8가지 이야기만 골라 수정한 후 아동학 전공자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사받았다. 각 아동에게 조합이 다르게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모든 이야기의 사용 비율이 같도록 하되 들려주는 순서는 다르게 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바뀔 때마다 상황별로 설정되어 있는 이야기를 번갈아 사용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인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에 관한 것이며 아동에게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을 묻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하였다. 문제마다 아동의 응답에 따라 0-3으로 수준을 부여하고 4문제의 수준 점수를 평균하여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으로 했다. 0수준은 대인 문제를 충동적, 신체적 공격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1수준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적만 생각하는 수준, 2수준은 상호적인 해결책을 찾지만 자신의 욕구를 우선 생각하는 수준, 3수준은 자신과 상대방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것이므로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조사절차

유치원과 국민학교 수업 시간에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명이 대상 아동을 개별적으로 만나 원장실과 빈 교실에서 면접 조사를 했다. 세 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유치원생의 경우 30분에서 40분, 국민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분에서 30분, 국민학교 3학년생은 15분에서 25분정도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의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 변량분석, Scheffé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인지양식 검사 점수를 연령에 따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5세 집단과 7세 집단, 5세 집단과 9세 집단, 7세 집단과 9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의존성이

〈표 1〉 연령에 따른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점수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F 값
5 세	40	7.53	2.52	a	86.37****
7 세	40	12.08	4.02	b	
9 세	40	17.00	2.94	c	

**** $p < .0001$

감소하고 장독립성이 증가하여 복잡한 자극을 접했을 때 이를 더욱 분석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권영실, 1988; 조진형, 1983; Vaught, Pittman & Roodin, 1975)와 일치한다.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인지양식 검사 점수를 성별에 따라 t-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의 성차에 관한 선행 연구는 성차가 있다는 결과(Coates, 1974; Vaught et al., 1975; witkin & Goodenough, 1977)와 성차가 없다는 결과(권영실, 1988; 김미정, 1987; 이경자, 1990)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가 없다고 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1) 연령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PIPS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연령에 따라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연령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F 값
5 세	40	5.60	1.85	a	17.85****
7 세	40	6.35	1.44	a	
9 세	40	7.75	1.58	b	

**** p〈.0001

또한 추후 검증을 한 결과,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5세 집단과 9세 집단, 7세 집단과 9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5세와 7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7세 집단과 9세 집단의 차이를 다시 살펴보면, 7세까지는 전조작기로서 지각을 통해 얻은 정보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9세 집단과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김은희, 1990; 박찬옥, 1987; Marsh, 198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 성별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라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방안의수 / 성별	5 세 M(SD)	7 세 M(SD)	9 세 M(SD)	전체 M(SD)	t값
남	5.65(1.69)	6.30(1.34)	7.60(1.60)	6.52(1.73)	-0.29
여	5.55(2.04)	6.40(1.57)	7.90(1.59)	6.62(1.98)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의 성차에 관한 선행 연구는 성차가 있다는 결과(박찬옥, 1987; Ford, 1982)와 성차가 없다는 결과(김은희, 1990; 백인주, 1987; Shure & Spivack, 1974)가 모두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가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4.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

(1) 연령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이 연령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유의한 연령차를 보였다.

〈표 4〉 연령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F 값
5 세	40	1.39	0.31	a	27.50****
7 세	40	1.66	0.24	b	
9 세	40	1.83	0.26	c	

**** $p<.0001$

이 결과는 박찬옥(1987),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6), Yeates와 그의 동료들(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추후 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 5세와 7세, 5세와 9세, 7세와 9세간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져 대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 성별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성별에 따라 대인 문제 해결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INS인터뷰의 점수를 성별에 따라 t-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백인주(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5〉 성별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문제해결수준 / 성별	5 세 M(SD)	7 세 M(SD)	9 세 M(SD)	전체 M(SD)	t값
남	1.38(0.29)	1.64(0.29)	1.80(0.28)	1.60(0.33)	-0.70
여	1.40(0.34)	1.68(0.18)	1.86(0.24)	1.65(0.32)	

5. 문제 상황의 특성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1)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이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을 문제 상황에 따라 paired t-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인 경우에 성인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이 높았다.

〈표 6〉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등장인물	평균	표준편차	F 값
아 동	1.81	0.45	7.99***
성 인	1.44	0.37	

*** $p<.001$

이 결과는 선행 연구들(Adalbjarnardottir & Selman, 1989; Eigenberg et al., 1985; Selman et al., 1986)과 일치하는 것이다.

(2)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친숙 정도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이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친숙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을 문제 상황에 따라 paired t-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되었듯이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친숙한 상황에서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Yeates와 그의 동료들(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7〉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친숙 정도에 따른 대인 문제 해결 수준

등장인물	평균	표준편차	F 값
친 숙	1.78	0.42	5.96***
비친숙	1.49	0.40	

*** p〈.001

6.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 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

〈연구 문제〉는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력이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검사 점수와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및 수준과의 상관 관계를 연령 집단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5세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 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의 상관관계

변 수	방안의 수	수 준
인 지 양 식	-0.069	0.037

〈표 9〉 7세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 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의 상관관계

변 수	방안의 수	수 준
인 지 양 식	0.022	0.121

〈표 10〉 9세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 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의 상관관계

변 수	방안의 수	수 준
인 지 양 식	0.413**	-0.281

** p〈.01

그 결과, 9세 집단에서만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9세 아동의 경우, 장독립성이 높을수록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인지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 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대인 문제 해결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5세, 7세, 및 9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양식이 장독립적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복잡한 자극을 대했을 때 이것을 보다 분석적으로 지각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이것은 최근에 유아교육이 강조되면서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일찍부터 학습지나 책을 통하여 다양한 지각적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째,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학습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네째,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제시한 방안의 수에는 남녀간 차이가 없다.

다섯째,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연령 차이만 있다. 즉, 아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동적이거나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상호적이고,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인지 발달에 따른 조망능력 발달의 결과로 생각된다.

여섯째,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인 경우에 성인인 경우보다 더 높다. 즉,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성인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아동은 이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상대방이 아동이라면 서로 동등한 위치이므로 보다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타협을 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곱째,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수준은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친숙한 경우에 친숙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이것은 친숙한 대상인 경우,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많고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9세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는 장독립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 결과는 장의존적인 아동이 장독립적인 아동보다 사회적 단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면접 조사가 장의존적인 아동을 더 많이 긴장시켜서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는 5, 7세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연령에서는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대인 문제 해결력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상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인 문제 해결력을 가상적인 문제 상황으로만 알아보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아동이 실제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교한 관찰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이 영역의 연구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로 아동의 인지 발달과 성적 향상에만 주력하는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인 대인 문제 해결력에 관심을 갖고 그 관련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고, 대인 문제 해결 방안의 수 이외에 대인 문제 해결의 수준까지 측정하고자 했던 점, 그리고, 대인 문제 해결력이 문제 상황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내용은 유아 및 아동의 균형잡힌 발달을 고려하는 교육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영실. (1988).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공간 조망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정. (1987). 5, 6세 유아의 인지양식과 창의성간의 관계 : 장독립성-의존성 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희. (1990).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박찬옥. (1987).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백인주. (1987). 유아의 동료간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 및 목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자. (1990). 유아의 장독립성 의존성 인지양식과 사회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진형. (1983). 부모의 양육 태도와 3-5세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dalbjarnardottir, S., & Selman, R. L. (1989). How children propose to deal with the criticism of their teachers and classmates: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s. Child Development, 60, 539-550.

Coates, S. W. (1974). Sex differences in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between the ages of 3 and 6.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9, 1308-1310.

Dishion, T. J., Loeber, M., & Patterson, G. R. (1984). Skill deficits and mal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37-54.

Eisenberg, N., Nundy, T., Shell, R., & Roth, K. (1985). Children's justification for their adult and peer directed compliant (prosocial and non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325-331.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Goldstein, K. M., & Blackman, S. (1978). Cognitive Sty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Goodenough, D. R. (1976).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field dependence as a factor in learning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83, 675-694.

Gottman, J. M.,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Kaplan, J., & Arbuthnot, J. (1985). Affective empathy and cognitive role-taking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youth. Adolescence, 20, 323-333.

Krasnor, L. R., & Rubin, K. H. (1981). The assessment of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young children. In T. Merluzzi, C. Glass, & M. Genest(Eds.), Cognitive assessment. New York: Guilford.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rdek, L. A. (1982). Long-term predictive validity of children's social-cognitive assessments. Merrill-Palmer Quarterly, 28, 511-521.

Leadbeater, B. J., Hellner, I., Allen, J. P., & Aber, J. L. (1989). Assessment of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stegies in youth engaged in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65-472.

Marsh, D. T.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

sonal problem solv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107-118.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Platt, J. J., Spivack, G., Altman, N., Altman, D., & Peizer, S. B. (1974). Adolescent problem-solving th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787-793.

Renshaw, P. D., & Asher, S. R. (1982).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The distinction between goals and strategies.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Springer-Verlag.

Ruble, D. N., & Nakamura, C. Y. (1972). Task orientation versus social orientation in young children and their attention to relevant social cues. Child Development, 43, 471-480.

Selman, R. L., & Demorest, A. F.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Selman, R. L., Beardslee, W., Schultz, L. H., Krupa, M., & Podorefsky, D. (1986). Assessing adolescent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 the integrat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50-459.

Shure, M. B. (1982).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 cog in the wheel of social cognition. In F. C. Serafica(Ed.),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ew York: Guilford.

Shure, M. B. & Spivack, G. (1972). Means-ends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among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348-353.

Spivack, G., & Shure, M. B.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Urbain, E. S., & Kendall, P. C. (1980). Review of social-cognitive problem-solving interventions with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8(1), 109-143.

Vaught, G. H., Pittman, M. D., & Roodin, R. A. (1978). Developmental curves for the portable Rod-and-frame test. Bulletins of the Psychonomic Society, 5, 151-152.

Witkin, H. A., Dyk, R. B., Faterson, H. F., Goodenough, D. R., & Karp, S. A. (1962).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NY: John Wiley & Sons.

Witkin, H. A., & Goodenough, D. R. (1977). Field depende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4(4), 661-689.

Witkin, H. A., Goodenough, D. R., & Oltman, P. (1979).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Current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7), 1127-1145.

Yeates, K. O., Schultz, L. H., & Selman, R. L. (1991).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n thought and action: A social-cognitive link to behavioral adjustment and social status. Merrill-Palmer Quarterly, 37(3), 369-406.